

2019 04
통권 제6호

한국통일협회보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2019 정기총회 이모저모







제6호 韓國統一協會報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Contents

- 08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 18 제1회 통일꾼의 상 시상식
- 19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33 협회 소식
- 35 동학회 소식
- 42 회원동정
- 45 UCOK 마당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2019년 2월 28일 오후 4시부터 AW컨벤션센터(종로구 부암동)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5시부터 개최된 기념식 1부에서는 송한호 명예회장이 개회사를, 손재식 전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였다. 2부 순서로 제1회 "통일꾼의 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통일부 장관의 표창장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수여하고, 통일꾼의 상패는 구본태 한국통일협회 회장이 증정하였다. 시상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3부 순서에서는 기념공연으로서 진도북춤의 명무와 명창이 출연하여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였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100여명의 참석자들간 환담과 교제를 통하여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부와는 별도로 우리 협회 차원에서 행하는 금번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통일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통일부는 “함께 만드는 평화, 함께 누리는 번영,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3.4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천해성 차관, 통일부 전 직원 및 한국통일협회 구본태 회장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일부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UNI-TV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통일부 창립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통일 미래비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행사에는 행복더하기 중창단과 가수 알리가 함께해 창설 기념식을 빛내주기도 했다.



개 회 사



한국통일협회 명예회장 송한호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맞아 통일부 직원 및 통일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을 앞당긴다는 사명을 띠고 창설된 통일부는 반백년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창설 당시 통일부는 장관 이하 45명의 인원으로 출발하였으며 연간 예산도 4천 여 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이 1km에 1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던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정기국회 본회의 때 모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통일원을 차라리 외무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기했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신태환 장관은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는 반백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일과 평화, 남북대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 통일교육 분야 등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국민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을 비롯하여 남북직접대화, 경제회담, 체육회담, 국회회담, 남북총리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평화정착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이어 1989년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통일의 대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현한데 이어 2004년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여 분단사상 처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에 진출하여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 수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3차례에 걸쳐 판문점과 평양에서 개최하여 공동선언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군사위협 해소, 남북교류협력 문제 등에 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부문에서는 연내에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작년 12월 착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부가 놀랍게 발전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은 단순히 50년이라는 세월에 의해 쌓여진 연륜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통일부에 재직중인 직원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통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데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못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실의에 빠지거나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여년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발간된 책을 보면 저자인 미국의 ‘조엘 오스틴’목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감에 사로 잡혀 있는 인생은 꼬이기 마련이며,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마음속에 언제나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뀌고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같은 비전을 품고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스틴’목사가 강조한 것처럼 백밀러만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높은 비전을 품고, 그동안 통일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하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태 회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그동안 통일업무에 많은 업적과 공로가 있는 회원들에게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통일꾼의 상’ 규정을 제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설 50주년이 되는 오늘, 처음으로 창설멤버인 이호경, 조영규, 권오덕 회원 등 25명에게 영예로운 ‘통일꾼의 상’을 수여키로 하였습니다. 수상하는 25분에게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전 통일부 장관 **손재식**

통일부가 설립된지 어느 듯 50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국민의 통일열망과 정부의 통일의지를 담아 설립된 통일추진조직이 50개 성상을 헤아리도록 존속한 것은 통일이 난중지난사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의 근본적 차이에 더하여 북한의 핵무장은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개 단체나 기관은 그 역사가 오래 될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역사가 긴 것은 그만큼 통일실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지에서 통일부 설립 50주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아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설립 이래 많은 중요한 일을 해 왔습니다. 통일정책의 수립, 통일의 구체적 방안 개발, 각종 남북회담의 개최, 이산가족의 재회,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통일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왔고 특히 최근 에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채택, 이산가족 재회, 올림픽에의 남북단일팀 출전, 북미정상회담의 유도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토통일 원장관으로 재직했던 3년 2개월 동안에도 종합적 통일방안의 제시, 20개 시범사업의 제안을 비롯하여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백년대계를 넘는 천년대계이기 때문에 그 속도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통일이 민족에게 재앙을 안겨다 줄 것이 아니라 복락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상악화를 초래할 통일이 아니라 현상개선을 가져올 통일이어야 합니다. 통일 후에 조국이 더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번영, 복지와 참다운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뜻과 지혜와 힘의 결집, 강한 근기, 불퇴전의 의지 등이 필요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는 중지 결집과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일단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박력이 요구됩니다. 잘 하면

지금 상황이 평화와 통일의 호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못하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한국통일협회는 초당적 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통일논의과정에 값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일찍이 모든 사람은 모든 문제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제군주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허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허용되어 있는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욱이 통일부에서 일했고 현재도 한국통일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통일문제에 관한한 강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통일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통일부 창설 50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조국통일의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기여를 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 이 민족적 대사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자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통일부 차관 **전해성**

존경하는 이흥구 총리님, 손재식 장관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선배 동료 여러분, 뜻깊은 날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젊음을 바치셨고 후배들이 열심히 꾸려 나가고 있는 통일부가 내일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1969년 국토통일원 창설 멤버 분들과 여러 선배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남북관계의 최일선, 평화통일의 현장에서 우리 통일 가족 한분 한분이 났아 오신 발자취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 동료 분들의 헌신, 그리고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통일부는 민족사의 곡절과 염원을 안고 기미독립선언 50주년을 기리며 창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우리는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남과 북은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분단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3.1독립선언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길이고, 평화통일로 감으로써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길이며, 선배, 동료 분들의 헌신이 결실을 맺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을 아는 나이에 들어선 통일부는 역사의 무게를 되새기면서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배, 동료 분들께서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100년 전 3.1운동이 그랬듯이,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원동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여정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지금, 정부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나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통일협회가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온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전 국무총리 이홍구

오늘 통일부 50주년 큰 자축하는 모임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봐도 이 통일부를 빼 놓고는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31년 전 1988년 2월25일에 갑자기 제가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통일부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차관으로 계셨던 송한호 한국통일협회 명예회장님, 그리고 구본태 회장님 등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사실상 모든 걸 이끌어주셨습니다. 대학에는 좀 있었지만 정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치가 않을 때였습니다. 잘들 이끌어주셔서 그때 2년 남짓하게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직원들은 물론 통일동우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적인 그런 유대 관계를 굳건히 지키시면서 함께 일해오던 것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잘 됐는지 그 후에도 통일부총리도 맡고 1988년부터 12년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여름에 물러났습니다만 아직도 통일에의 길은 먼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리 통일부에서 함께 일한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신 통일관계 여러 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의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가 해온 일들을 돌이키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1988년 장관시절 바로 그해 7.7선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날 별안간 낸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냉전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남북이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위해서 7.4남북공동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7.7선언 이야기하면서도 7.4공동성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국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72년도라도 지금 환갑넘으신 분들이 아니면 7.4공동성명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별안간에 일어나는 일은 없고 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협회회원 여러분들이나 함께 걱정했던 분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 남북한의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옳은 얘기라고 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가 있어야 이것도 효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협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듭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이런 전통을 알리는 것 그리고 저와 이 일을 맡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걸 돕고 지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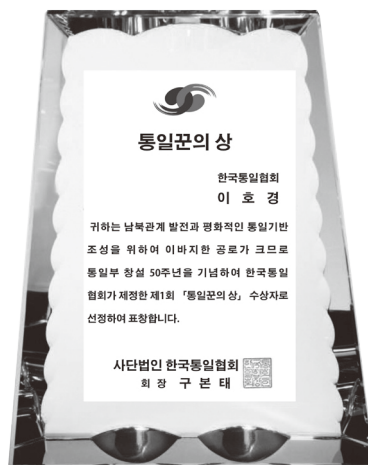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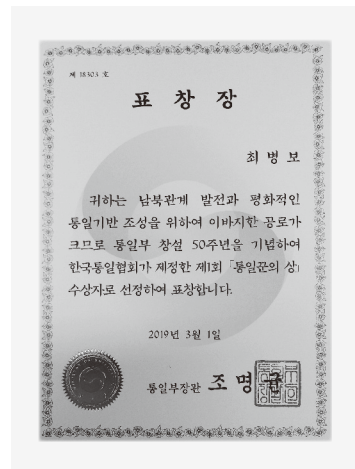
우리가 좀 앞장서서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하면 된다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서 무작정 이렇게 50주년 했다고 60주년을 기다리고 70주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통일부와 인연을 맺어서 살아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함께 통일부 창설 50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통일꾼의 상” 시상식

2.28 통일부 창설50주년 기념식에 이어 제1회 “통일꾼의 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통일부 장관의 표창장을 전해성 통일부 차관이 수여하고, 통일꾼의 상패는 구본태 한국통일협회 회장이 증정하였다. “통일꾼의 상”은 민간차원에서 소리없이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나 개인들을 찾아 통일꾼의 상패를 증정하고 정부표창 등을 통하여 그 공적과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한국통일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통일꾼의 상” 수상자는 통일부 창설에 기여하고 통일동우회 활동에 힘써 온 유공자들과 한국통일협회 특별회원, 민간단체 유공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었다. 수상자는 창설회원으로서 권오덕, 이호경, 조영규, 조치현, 최문현, 태윤호 등 6명, 통일동우로서는 최병보, 김영일, 윤경태, 김방지, 최영일, 정하웅, 김시한, 이창섭, 조순자 등 9명, 특별회원으로서 한원덕, 엄상호, 이승훈, 변진홍, 마선남, 김갑수 등 6명, 민간단체 인사로서는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와우정사 조실 해곡스님,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정열 IKIS포럼 고문 등 총 25명이다. 시상후 전해성 통일부 차관이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2.28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는 2.22 1차 이사회에서 상정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 인사말 / 회장
- 상정 안건 심의·의결
 - 의안1 :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감사보고
 - 의안2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안3 : 「통일꾼의 상」 시상규정(안)
 - 의안4 : 제1회 「통일꾼의 상」 수상자 명단(안)
 - 의안5 : 특별회원 임명(안)

2019년도 정기총회 심의·의결 사항

I. (의안-1) :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가. 2018년 사업실적

한국통일협회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 기반조성에 주력

1. 각급 회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화

- 2018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1.18)
- 전·신임 부회장단 회의(2.2)
- 이사회 개최 4회(1.18, 3.1, 5.25, 9.18)
- 1, 2, 3분기 운영회의 개최(4.12, 7.2, 10.11)
- 특별위원회 개최 5회(1.12, 4.4, 6.12, 8.28, 10.23)
- 통일교육 전문과정 이수관련 간담회(7.30, 8.1, 9.5)
- 회장단 간담회(9.6)
- 주간업무회의(매주 월요일)

2. UCOK 학술회의 개최(2회)

- 1차 : 5.25,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방향과 좌표
- '남북기본협정'체결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2차 : 11.1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공동번영의 길

3. 2018년 송년회 개최

- 11.15 제2차 UCOK 학술회의시 개최

4. 2018년 통일·대북정책건의서 준비 작업

- 자문 간담회(2회), 집필진 워크숍(2회)
- ※ 2019.1.15 정책건의서를 협회보 5호로 발간, 언론 등에 배포

5. 2018년 협회 수첩 발간 배포

- 2016년도 발간수첩을 전면 개편

6. 「박정희 대통령 휘호 현판」 이전 관련

- 서울시(문화융합경제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 이전기로 확정
- 향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리모델링시 협회 의견 반영 예정
- ※ 서울기록원 :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를 위한 서울시청 소속기관

7. 유관기관 및 단체간 유대 강화

- 남북하나재단 방문, 업무 협의(2.9)
- 통일부 창설 49주년 기념식 축하(3.2)
- 통일부 간부 초청 간담회(3.12)
-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6.15, 8.28)
- 세한대학교 창립자 동상제막식 축하(6.25)
- 통일부 주최 DMZ평화협력포럼 축하(8.29, 11.20)
- 엄홍길 휴먼재단 창립기념 축하(11.30)

8. 회원 관리

- 통일교육 유공자 정부 포상(5.24)
- 제21기 통일교육위원 위촉(15명 : 협회 6, 지역 9)
- 통일부 시행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선발(10명)
- 통일동우 추모코너 개설(협회 홈페이지/회원광장)
- 협회 회원 판문점 방문 견학(9.29)
- 회원 경조사 지원(47건), 동호회 활동 지원(3건)
- * 본인별세(동 훈, 강광식, 신윤철, 김순희, 전원현, 유근선)

9. 협회 위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지부 결성 준비

- 광주지부 : 광주현지 방문, 협의 간담회
- 부산지부 : 사전 협의 진행
- 국외지부 : 미국, 중국, 일본 등 설치 검토

나. 2018년 결산(안)

재무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현금	90,935,431	(부채 합계)	0
상품권	810,000	자본	
임차보증금	5,000,000	자본금	20,000,000
(자산 합계)	96,745,431	이익잉여금	76,745,431
		(자본 합계)	96,745,431
합계	96,745,431	합계	96,745,431

현금내역

- 정기예금(우체국) : 85,000,000
- 보통예금 : 5,935,431
 - 농협(회비) 2,923,433
 - 우체국(회비) 1,439,194
 - 우리(회비) 304,689
 - 농협(후원금) 1,268,115

상품권내역

- 2018송년회 상품권 잔고 : 810,000

임차보증금내역

- 협회 사무실 월세 임차보증금 : 5,000,000

수입지출계산서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전기 이월(A)	96,525,883
수입(B)	59,695,552
- 회비(124명)	26,280,000
- 후원금(특별회원 등)	26,540,000
- 기부금(송년회)	1,000,000
- 광고수수료	4,500,000
- 예금이자	1,375,552
지출(C)	59,476,004
- 제1차 UCOK 학술회의	4,671,860
- 제2차 UCOK 학술회의 및 송년회	13,028,760
- 2019년 정책건의	1,546,300
- 협회보 발간 배포	3,218,740
- 회원수첩 발간 배포	1,988,500
- 회원 관리(경조사, 동호회 지원)	4,758,500
- 특별회원 관리	3,770,600
- 봉사수당(김영도), 퇴직수당(조순자)	10,600,000
- 회의비(총회, 이사회, 일반회의 등)	3,785,680
- 사무실 임차료, 관리	9,985,240
-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기타잡비	1,875,824
차액(D=B-C)	219,548
차기 이월(E=A+D)	96,745,431

감 사 보 고 서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2018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의 결산에 관하여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 등 제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감사보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감 사 이 강 락

감 사 장 상 호

Ⅱ. (의안-2) : 2019년 사업 계획 · 예산(안)

가. 2019년도 사업계획

협회 출범 3년차를 맞아 협회 활동의 내실화 및 외연 확대에 주력

1.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2.28) : 2018년 총회와 병행
-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결성(1.14), 기념사업 추진(연중)
- 기념등반대회(3.21, 인왕산숲길)

2. 제3차, 4차 UCOK 학술회의 개최 및 통일의식 확대

- 학술회의 후원체를 통일부 외 공기관, 단체 등으로 다각화
- (사)통일생각과 공동 주관으로 학술회의 개최 및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운영
- 통일부 등록법인, 유관단체 등 초청 범위 확대
- ※ (사)통일생각에서 3,000만원 지원 예정

3.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협력사업방안 모색

-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사례 탐방, 민간차원의 대북협력사업 추진 등 협회 차원의 역할 모색
- ※ 비예산사업으로 우선 추진

4. 통일·대북 정책건의서 작성

- 2018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파견과 전술핵 잠정배치 구상
- 2019년 :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효율화를 정책대안 구상
- 2020년 : 한반도 평화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건의

5. 제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 우리 협회 배당인원을 대폭 확대(19명 ⇒ 40명)

6. UCOK-TV(유튜브 방송) 개국 및 협회 홈페이지 개편

- 협회 출범 3년차로 접어드는 시기에 협회 접근성을 제고
- 1인 미디어, SNS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7. 국내외 지부 결성 추진

- 광주지부 : 지부설치 가시화
- 부산지부 : 지부 설치를 위한 준비
- 국외지부 : 현지와 협의(미국, 일본, 중국)

8. 특별회원 보강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 특별회원수를 25명이상으로 확대 등
- 통일부 장관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체포럼 등 활성화

9. 협회 발전기금 조성

- 협회 독자적 사무실 확보 기금 조성
- 협회 자체 수익사업방안 모색

10. 회원유대, 조직역량 강화

- 각급 회의체 활성화, 동호회 활동지원
- 사무처 및 부서 운영 내실화

나. 2019년도 예산(안)

1) 편성방향

- 전기이월 96,745천원에 수입 96,400천원, 지출 96,400천원, 차기 이월 96,745천원으로 균형예산 편성·운영
- 수입부에서, 회비·찬조후원금은 2018년도 납부 수준과 특별회비 등을 고려하고 MOU 체결을 통한 후원금 등 반영
- 지출부에서, 재정상황 안정시까지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2018년도 수준을 유지

2)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내 역
1. 전기 이월	96,745	
2. 수입	96,400	
○ 회비	34,000	정회원 24,000천원(160명×15만원) 특별회원 10,000천원(20명×50만원)
○ 지정기부금	20,000	외부인사 및 단체의 후원
○ 찬조·후원금	35,000	MOU 체결후원금 등
○ 광고수입	6,000	150만원×4회(회보게재, 홈페이지광고)
○ 예금이자 등	1,400	2018년 정기예금 금리 적용

3. 지출	96,400	
○사업비	62,800	
- 통일부 창설 50주년 사업	14,000	기념식 및 기념행사 등
- UCOK 학술회의	12,000	6,000천원×2회
- 2020년 정책건의서	3,000	집필진워크숍, 자료집 인쇄
- 대학생통일교육아카데미	20,000	(사)통일생각과 공동운영
- 홈페이지개편, 유튜브 방송	3,000	
- 송년회 등	4,800	송년회, 특별회원 관리
- 협회보 등 발간·배포	6,000	1,500천원×4회
○기관운영비	33,600	
- 회의비, 위원회 운영	6,000	2018년도 수준 적용
- 봉사수당	9,600	80만원(1인)×12개월
- 경조사 및 동호회 지원	5,000	경조사 지원, 4개 동호회×30만원
- 협회 사무실 운영	10,000	2018년 수준 적용
- 기타	3,000	자료발송비 등 2018년도 수준 적용
4. 수지차액 (2-3)	-	
5. 차기이월액 (1+4)	96,745	

※ 예산편성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수입	1. 회원 年회비	회장 1,000천원 부회장 500천원 이사, 감사 300천원 운영위원 150천원 회원 30~50천원 특별회원 500천원 이상	
	2. 광고 수수료	500천원/건	
지출	1. 경조사	자녀결혼 100천원 또는 花環 본인사망 200천원(弔慰金 및 弔花) 부모·부인별세 100천원 빙부모 별세 弔旗 비치	
	2. 동호회 지원	산우회, 기우회, 들꽃모임, 한마음봉사단 각 300천원	
	3. 봉사수당	총 예산의 15% 이내	
	4. 업무활동비	필요시 식사비, 교통비 등 사용	
	5. 원고료, 편집비	협회보 발간 시 원고료 5-10만원, 편집 및 봉사요원 수당 10만원	

Ⅲ. (의안-3) : 「통일꾼의 상」 시상규정(안)

“통일꾼의 상” 시상 규정

제정 2019.2.2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꾼의 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의 결정) ① “통일꾼의 상” 수상자는 평화통일에 기여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중 한국통일협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상자의 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시상) ① “통일꾼의 상”의 시상은 매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 4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Ⅳ. (의안-4) : 제1회 「통일꾼의 상」 수상자 명단(안)

구 분		후보자
전직 통일부 소속 공무원	창설회원(6)	이호경, 권오덕, 조치현, 태운호, 조영규, 최문현
	통일동우회 공로(9)	윤경태, 최병보, 김영일, 정하웅, 김방지, 최영일, 김시한, 이창섭, 조순자
	소계	15명
평화통일 기여 인사	한국통일협회 특별회원(6)	한원덕, 엄상호, 이승훈, 변진홍, 마선남, 김갑수
	민간통일단체 (4)	장운영(통일신문 사장) 신영석(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해근(와우정사 조실) 이정열(IKIS포럼 고문)
	소계	10명
총계		25명

V. (의안-5) : 특별회원 임명(안)

1. 임명근거

-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성). 2. 특별회원 나).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입된 자

2. 임명대상자(2명)

- 임성학(57세)
 - (주)톱클래스항공여행 대표이사 사장
 - IKIS포럼 회원
- 신호철(61세)
 - (주)매직스 회장

※ 現 특별회원 명단(21명)

성명	직위	성명	직위
김갑수	한영고 총동문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김봉준	현성그룹 회장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김성옥	청송농원 대표	이승훈	세한(世翰)대학교 총장
김승렬	(주)두비원 대표	이영만	은평치과 원장
김승취	(주)삼원실업 대표	이정열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
마선남	IKIS포럼 공동대표	정일화	진양로지스틱 대표이사회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원덕	한덕서비스그룹 회장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한종열	우먼센스(주) 대표이사 회장
변진홍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김해근	와우정사 조실
엄기영	전 MBC 사장	정택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
양명영	타워컨벤션 회장		

협회 소식

♣ 2019년 제1회 운영회의 개최

2019.1.23(수)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2019년 제1회 운영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사무처로부터 2018년 사업실적과 2018년 결산(안)을 보고받고 이를 인준하였으며, 2019년 사업계획 및 방향을 심의 보완하고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2.28(목) 2019 정기총회와 50주년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가지기로 하였다. 회의참석자는 구본태 회장을 비롯하여 엄종식, 김천식, 김형석, 김방지 부회장과 정부락, 김원호, 최영일, 이준우, 정무석, 이용헌 이사, 김갑수 특별위원, 양재성, 곽정탁, 전홍기, 김영도 운영위원 등 16명이다.

♣ 2019년 제1차 이사회 개최

2019.2.22(금)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28(목) 개최 예정인 2019년 정기총회에 부의할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일꾼의 상 시상규정(안), 제1회 통일꾼의 상 수상자 명단(안), 특별회원 추가임명(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참석자는 구본태 이사장, 김원호, 이준우, 정무석, 정부락, 이용헌, 최영일, 조규봉 이사, 김영도 기획지원실장 등이다.

♣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2.25(월) 11시,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1.14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차 회의를 가진 후, 2.11(월) 2차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회의를 통해 기념식 행사 관련사항을 최종 점검 마무리하였다. 참석자는 구본태 회장, 김종태, 김방지, 김원호, 정무석, 조규봉, 이준우, 김갑수, 양재성, 전홍기 위원, 김영도 실장 등 11명이다.

♣ 2019년 정기총회 및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개최

2.28(목) 오후 4시부터 AW컨벤션센터(종로구 부암동)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1차 이사회에서 상정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어 5시부터 개최된 기념식 1부에서는 송한호 명예회장이 개회사를, 손재식 전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였다. 2부순서로 제1회 "통일꾼의 상" 시상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3.19(화) 오후 6시반 AW 컨벤션센터 아젤리아홀(종로구 부암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특별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의, 신호철 신입회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은 후 만찬을 나누며 향후 협회의 발전에 대한 회원간 깊이 있는 의견 교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참석하여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귀한 특강을 하였다.

♣ 2019 전회원 등산대회 개최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전회원 등산대회가 3.21(목)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전 10시반 사직단(사직공원) 입구에 집결하여 기념촬영을 가진 후 약 2시간반에 걸쳐 2개 코스로 나누어 인왕산을 등산한 후 창의문 시인의 언덕을 거쳐 하림각(아이리스홀)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엄홍길 산악인이 동행하여 참석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므로 등산대회가 한층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루 전날 우천으로 곳은 날씨였으나 이 날은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신선한 공기속에서 회원들이 건강을 돌우는 기회가 되었다.

동호회 소식

山友會

| 회장 김원호

▣ 정기모임: 매월 셋째 목요일 (모임장소 및 시간은 그때 결정)

산우회 2019년 1월과 2월은 동절기여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월은 21일(목) 인왕산 정상길 코스와 숲길코스의 두 곳으로 나뉘어 산행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등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산길에는 창의문 인근 '시인의 언덕'에서 집결하였고, 오찬은 '하림각 2층 아이리스홀'에서 간단한 행사 개요 등을 설명하는 자리와 반주를 겸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이날 구본태 회장과 엄홍길 산악인, 김원호 회장 등 50명의 많은 인원 참석이 있었습니다. 4월은 18일(목) 6호선 화랑대역에서 10시에 모여 불암산 꽃피는 둘레길을 탐방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3월 참석자 : 구본태 협회 회장, 김원호 산우회장, 엄홍길 산악인 등 모두 50명 참석



GOLF회

| 회장 이재호

▣ 정기모임: 매월 첫째 화요일, 화성상록컨트리클럽 (시간은 추후통보)

골프회 2019년 3월 모임은 4일(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해솔리아CC에서 07:30분부터 8명이 모여 개최 하였습니다. 차기 모임은 4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모이는 시간 장소 등 일정이 확정되면 이를 공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과거 자료)

- 3월 참석자 : 이재호, 문대근, 양창석, 이호, 정광채, 조건식, 조용남, 정영태(준회원)



棋友會

| 회장 金容在

▣ 정기모임: 매월 둘째 목요일, 한국기원(종로3가) 14:00

기우회 2019년 1월과 2월은 동절기여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월 모임은 14일(목) 종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기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종료후 낙원상가 인근 '마산아구찜'에서 반주를 곁들여 즐겁게 환담을 하였습니다. 4월은 11일(목) 종로3가역 인근 한국기원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3월 참석자 : 권오덕, 김영일, 김윤수, 전흥기, 최영일



基督信友會

| 회장 이정수, 총무 배대원

▣ 정기모임: 매월 넷째 주 금요일, 한국통일협회 사무실

기독신우회는 11시반 친교, 12시 예배, 오후 1시 오찬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기도 순서자가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 1월 25일 : 송기창 목사, 송한호, 이병학, 이정수, 이영일, 이호, 조영규, 김순교, 배대원, 송병각, 김영도
- 2월 22일 : 송기창 목사, 송한호, 이호, 송병각, 손종수, 김순교, 조영규, 배대원
- 3월 29일 : 송기창 목사, 송한호, 이정수, 이병학, 조영규, 이호, 김순교, 배대원
- 4월은 2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 기독신우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꽃모임

| 회장 : 온경성

정기모임: 짝수 월(격월) 둘째 주 화요일

들꽃모임 2019년 2월 모임은 12일(화) 명동에 위치한 음식점 '쿠우쿠우'에서 단출하게 4명이 모여 개최 하였습니다. 차기 모임은 5월 14일 홍대 인근 '메리킹'에서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임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 온경성, 김방지, 박선미, 채운숙



한마음봉사단

| 단장 : 김명영

봉사활동: 매월 첫째 월요일 11:00~14:00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

한마음봉사단 2019년 1월 모임은 7일(월) 11:00부터 14:00까지 강북구에 위치한 시립강북종합복지관 연꽃식당에서 급식배식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종료후 수유역인근 '남원추어탕'에서 담소를 곁들여 오찬을 하였습니다. 오찬후 인근 커피하우스에서 양재성회원의 주관으로 다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2월~5월 4개월간은 동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 할 수가 없으며, 공사 종료후 6월부터 다시 봉사활동을 전개 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월 참석자 : 김명영, 김원호, 김창수, 양재성, 전흥기, 최영일



기타 동호회 모임

七夕會 | 회장 김영일

정기모임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 (시간 및 장소는 모임시 결정)

※ 칠석회 2019년 1월 모임은 24일(목) 오후1시 '항가'에서 정인환 회원을 포함하여 7명 참석 하에 개최 하였습니다. 3월 모임은 28일(목) 12시 30분 '대림정'에서 최봉기 회원 등 8명이 모였습니다.

常綠會 | 회장 조영규

정기모임 : 월 2회 짝수 주 토요일 (시간 및 장소는 모임 시 결정)

※ 상록회 2019년 3월 모임은 9일(토) 및 23일(토) 과천 대공원역에 모여 서울대공원 주변을 산책하고 사당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였습니다. 4월은 13일(토) 및 27일(토)에 만나 역시 서울대공원 둘레 길을 걸을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7~8명입니다.

草樹會 | 회장 정인환

정기모임 :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간 및 장소는 모임시 결정)

※ 초수회 2019년 3월 모임은 5일(화) 오전에 '동대입구역'에서 만나 남산 둘레 길을 산행하고 하산 후에는 남대문 인근식당에서 오찬을 하였습니다. 4월 모임은 2일(화)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白雲會 | 회장 김석진, 총무 윤재훈

정기모임 : 매분기 둘째달 셋째 화요일 (시간 및 장소는 모임 시 결정)

※ 백운회 2019년 1/4분기 모임은 3월에 개최하였으나 회원들의 개인사정으로 4명만 참석 하였습니다. 차기 모임은 2/4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 등 상세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과거 자료)



■ 統馬會 | 회장 김영남, 총무 박정훈

● 정기모임 : 매분기 마지막 달 둘째 화요일 (일시 및 장소 별도결정)

※ 통마회 2019년 1분기 모임은 여러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차기 모임은 6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이 확정되면 추후 모든 회원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 두木會 | 용인, 분당지역 모임, 김의삼 회장

● 정기모임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 두목회란 명칭은 두번째 목요일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관광지 방문, 사적지 탐방, 등산활동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모임은 14일(목) 모임을 개최 하였으며 4월은 해외여행 일정 등의 회원이 있어 25일(월) 개최 할 예정입니다.

• 참석자 : 김석진, 김의삼, 손인교, 이종규, 이 호

■ 二金會 | 통일부 OB모임, 정하웅 회장

● 정기모임 : 격월(홀수 월) 둘째 주 금요일 (일시 및 장소는 별도통보)

※ 이금회 2019년 1월 모임은 11일(금) 상계동 노원역 근처 '대게나라'에서 5명 참석하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 모임은 12일(금) 방학역 인근 횃집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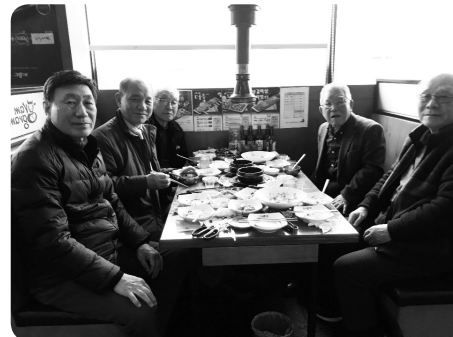
• 1월 참석자 : 김시한, 남국현, 손필영, 신형순, 정하웅

■ 웃찾방

● 정기모임

※ 웃찾방 모임은 2019년 2월 27일(수) 반포동에 위치한 음식점 "그램그램"에서 5명이 모여 개최 하였습니다.

• 2월 참석자 : 박찬세, 정대규, 정인환, 정하웅, 최봉기



■ 교육(주) | 회장 정하웅

● 정기모임 : 시간 및 장소는 모임시 결정

※ 교육(주)모임은 1994년 당시 통일부 교육과에 재직하던 직원으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모임은 5일(화) 강남구 학동에 위치한 음식점 "세종한우"에서 5명이 모여 개최 하였습니다.

• 3월 참석자 : 정하웅, 강현식, 김한국, 최병일, 한상학



■ 통친회 | 회장 정하웅

● 정기모임 : 격월개최, 시간 및 장소는 모임시 결정

※ 통친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2019년 3월 모임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음식점 '명산옥'에서 7일(목) 5명이 모여 개최하였습니다.(사진은 과거 자료 포함)

• 3월 참석자 : 정하웅, 김석진, 김의삼, 김종태, 변만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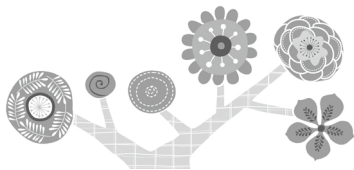
회원 동정

■ 삼가 고인의 冥福을 빕니다.

- 김덕중 운영위원(전 경기대 교수) 모친 별세 1.30
- 송기영·송기화 회원 부친 별세 2.12
- 김기선 운영위원 부친 별세 3.22
- 고정식 회원 부친 별세 4.4

■ 축하드립니다.

- 이병학 운영위원(한국미술협회 고문) 태평양미술가회 회장 취임
- 김승취 특별회원 탈북민 장학금 전달식



「회원 동정」게재 안내

「한국통일협회보」에는 회원님들의 동정 및 주소·전화번호 변동사항, 저술·수상·학위취득 사항, 세미나·포럼·강연회, 수필·시·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경조사 연락 안내

회원님들의 가정에 자녀 혼사나 본인(배우자) 및 부모님 별세 등 경조사가 있을 시 소정의 경조금 또는 화환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빙부모님 별세 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협회 조기'를 빈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공지에 필요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 : 10만원 또는 花環, 본인 별세: 20만원(弔慰金 및 弔花), 부모·배우자 별세: 10만원 또는 弔花, 빙부모 별세: 협회 弔旗 비치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협회는 통일부 등 외부 기관단체의 일체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체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는 회원 경조사 및 친목,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각종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年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특별회원 50만원 이상, 이사 및 감사 30만원, 운영위원 15만원, 일반회원 3~5만원입니다. 협회 정관은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관 제6조(권리와 의무)
2.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정관 준수의 의무를 진다. 회비와 입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계좌번호 안내

- 농 협 : 032-01-18413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체 국 : 010041-01-04405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리은행 : 1006-401-436662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회비 납부 현황 (2019.1.1 ~ 4.3) |

직책	성명	회비	납부현황
고문	이세기, 이흥구, 최영철, 한완상, 김 덕, 나웅배, 강인덕,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김하중, 현인택, 류우익, 류길재, 홍용표, 조명균, 이동복, 이영일	임의	
명예회장	손재식, 송한호, 박찬세, 서극성	임의	
회장	구본태	100만원	구본태(100)
부회장	엄종식, 김방지, 김한국, 김천식, 설동근, 어명하, 이종렬, 정하웅, 황부기, 김중태, 문대근, 고성호, 손필영, 김형석, 전경만, 한원덕(특)	50만원	한원덕(100), 신영석(50), 김방지(50), 전경만(50), 김형석(50), 김중태(50)
이사	김원호, 서상덕, 이용현, 이준우, 정부락, 정무석, 조규봉, 조원규, 최영일, 한홍기, 김영남, 김진도, 손병목	30만원	정무석(30), 최영일(30), 이용현(30), 조규봉(30), 정부락(30)
감사	이강락, 장상호	30만원	
특별회원	김갑수, 김봉준, 김성옥, 김승렬, 김승취, 마선남, 문성목, 박용옥, 변진홍, 신호철, 엄기영, 엄상호, 엄홍길, 양명영, 이승훈, 이영만, 이정열, 임성학, 정일화, 정택환, 한종열, 해 국	50만원	김갑수(50), 마선남(50), 신호철(50), 엄상호(50), 엄기영(50), 엄홍길(50), 김승렬(50)
운영위원	강석승, 고경빈, 공태영, 광병채, 광정탁, 권영양, 권오덕, 김덕영, 김명수, 김명영, 김문호, 김병수, 김봉희, 김시한, 김영도, 김영일, 김용환, 김의삼, 김창수, 김호성, 남국현, 류진영, 박성만, 박정훈, 박찬봉, 박하진, 박홍렬, 박희봉, 배광복, 배대원, 배영기, 백옥동, 변만근, 손인교, 손종수, 송길성, 송병각, 송승섭, 신상익, 신형순, 심용창, 양영찬, 유일업, 유종열, 유종수, 윤경태, 윤미량, 윤용범, 윤재훈, 윤정원, 이병학, 이성원, 이은택, 이정수, 이준구, 이준호, 이충원, 이 호, 임만호, 임종혁, 전봉근, 전신병, 정광채, 정대규, 정동문, 정인환, 조용국, 조용남, 조종남, 조희환, 최봉기, 최상철, 최수근, 최정수, 최창순, 태윤호, 한안석, 황순정, 하태만, 김수일, 이금순, 김기웅, 이수영, 최보선, 한기수, 황봉연, 김용규, 김용규A, 김경태, 김달술, 김석향, 김영탁, 손귀자, 손진일, 신덕수, 양재도, 유재열, 양무진, 임태순, 장정자, 조명철, 조영규, 하장춘, 김계진, 김진구, 이명수, 김중환, 한상학, 이봉기, 박경석, 원기선, 김영상, 김연철, 윤승일, 이중재, 황병일, 김광희, 전홍기, 진준남, 김석진, 문만삼	15만원	이중재(5), 황병일(5), 김광희(5), 전홍기(10), 진준남(5), 최정수(15), 박희봉(15), 황순정(15), 문만삼(5), 윤용범(15), 김석진(15), 김창수(15)
일반회원		3~5만원	전윤태(5), 김병옥(5), 조동규(5), 조영해(10), 백남신(3), 정세진(5), 권진호(5)
합계			38명 / 1,113만원

* 특별위원 후원금 : 한원덕(500), 김갑수(300), 김승렬(200), 마선남(300), 이승훈(200), 신호철(200), 엄상호(100), 엄기영(100), 엄홍길(100), 이정열(200), 김성옥(200), 양명영(300) : 밑줄은 약정

* 후원금 : 고경빈(6)

★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UCOK 마당

統一部 창설 50年



수필가 정하웅

정부는 1945년 광복이후 분단된 국토를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1969년 3월 1일 「國土統一院」(이하 統一部라 칭함)이라는 기구를 창설하였다. 그 배경은 당시 사회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구심점



*박정희대통령 '회호' 제막식 (1977년 2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분단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컸다 할 수 있다.

과거 분단된 국가였던 동·서독에서도 통일부와 같은 부서가 있었다. 서독은 양국관계를 독일내의 관계로 설정하여 내독성이라는 부서를 두었고, 동독은 외무성

에서 통일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분단돼 있는 대만은 행정원 산하에 있는 대륙위원회가 대 중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대남기관인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사실 북한의 두 기관은 대남공작을 통한 적화통일이나 한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그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분단된 모든 국가는 통일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는 정부기구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창설될 때 국(局)정도 밖에 안 되는 초미니 부처로 출발했다. 이는 청사나 조직, 인원 및 관장업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서울 장충동 한국반공연맹 건물¹⁾에 3室 1課 7擔當官의 조직에 인원이 고작 45명이었다. 관장업무 또한 통일정책, 자료조사·연구, 교육·홍보업무가 전부였다. 인원이 극히 적었기에 국회에서 하나의 부처(部處)로 하기보다는 외무부의 한 부서(部署)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신태환 초대장관이 이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 통일부가 창설되었음에도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 대북특사 방문을 비롯하여 남북 간 대화와 중요 핵심적인 합의 등은 중앙정보부가 계속 맡아 했고, 반공교육과 북한자료수집 및 분석·정리 등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이북5도청이 그대로 맡아 했다. 또한 해외에서 벌였던 남북 간의 체제경쟁 역시 외무부와 상공부, 문화공보부가 계속 맡아 왔다. 그래서 통일부는 뭘 하는 부서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던 중 노태우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주한미군보유 핵무기전면철폐, 중국과의 수교 등이 이루어지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때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위상도 장관에서 부총리부서로 격상되었다. 통일부의 저력이 발휘된 것은 199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비핵화협상을 비롯하여 1994년 제네바합의를 위한 작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창설과 대북경수로사업진행 등을 맡으면서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는 탈북자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통일원이 다시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부총리에서 장관부서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조성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부의 대북사업은

더욱 활발해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방북지원, 언론사 및 기업들의 행사지원 등 지원사업들이 크게 늘어났다. 2017년 4월 통일부가 발표한 ‘정부별 대북송금과 현물제공내역’에 의하면 이 때 북한에 보낸 돈은 정부와 민간분야를 합쳐 43억6,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인해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북사업인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판문점선언을 통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합의되면서 2018년 8월과 12월에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이 행해졌고, 12월엔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와 연관 되어 그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듯 통일부는 50년이라는 반세기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1972년에 통일연수소(현 통일교육원)가 개소되었고, 1980년에 남북대화사무국(현 남북회담본부) 편입, 1991년과 1996년에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부서 신설, 199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신설, 2003년의 남북출입사무소 신설 등 조직이 크게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정부중앙부처의 핵심부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통일부는 현재 본부에 2실 3국 2관 1단 25과 담당관 1팀, 8개 소속기관에 4부 26과 3팀으로 그 인원만도 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동안 통일부를 거친 장관만도 현재까지 4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AW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통일협회가 주관하는 ‘통일부 창설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손재식, 이흥구, 송한호 님 등 역대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100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치사말씀 역시 “남북통일 문제도 이처럼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되었다. 어느 분께서는 “부처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좋으나, 통일부만은 짧을수록 좋다”는 의미 있는 말도 남기셨다. 또 누군가는 건배사에서 “10년 후의 60주년기념식은 아예 없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이는 통일이 10년 안에는 꼭 이뤄지기를 갈망한데서 나온 말이다. 이날 행사는 동 협회가 제정한 ‘통일꾼의 상’ 시상식과 함께 평화통일을

1) 통일부 청사변동 : 한국반공연맹건물 (장충동 / 1969년 3월) ⇒ KBS 건물 (예장동 / 1977년 1월) ⇒ 정부서울청사 (세종로 / 1986년 2월)

기원하는 명무, 명창공연이 펼쳐져서 흥겨운 축하의 장(場)이 되었다. ‘통일꾼의 상’은 창설회원, 통일동우, 특별위원, 민간단체 등 4개 그룹에서 총 25명이 통일부장관 표창장과 함께 (사)한국 통일협회 회장의 상패를 받았다. ‘통일꾼의 상’ 제정의 취지는 좋았다고 본다. 다만,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받았어야 하는데, 나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된 것이 흠이라면 흠인 것 같다. “퇴직자 중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 간 중요회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일을 하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처가 통일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또한 진보 또는 보수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질 때마다 정책의 변화를 느끼게 한 것도 통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통일업무가 정치논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통일부에는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일의 방향과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것은 곧 1989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끌어 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라는 민족공동체의 헌장이 있고, 평화통일의 사명이 명시된 최고의 법률 헌법(헌법전문 및 제4조)이 있다. 누구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만 한다면 일관된 통일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깊은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통일부는 더욱 핵심부서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통일부가 정부서울청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꾼의 상」 수상자들